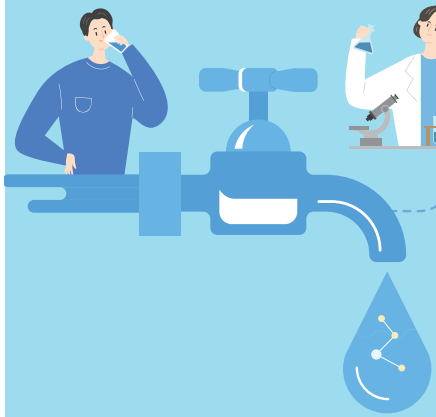


여수시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깨끗한 물 공급



수돗물 공급가정 및 사업장 대상 시민 체감 수돗물 신뢰도 향상 목표 잔류염소·배관상태 등 8개 항목 49개소 검사 결과 ‘적합판정’

여수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

을 음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수질검사는 총 8개 항목으로 심미적 영향 물질인 수소이온농도(pH)·탁도·

색도, 소독의 정도를 나타내는 잔류염소, 배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철·구리·아연·망간 등을 검사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온라인 물사랑누리집(lovewater.or.kr) 또는 전화(061-659-4926)로 신청하면 되며 일정을 조율해 시 담당자가 세대를 직접 방문해 채수한 후 결과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통지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 수돗물은 정

수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49개소를 대상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수=이경기 기자

영취산·흥국사 일원 국가지정 ‘명승’ 예고

여수시는 우리나라 진달래 3대 군락지로 알려진 ‘영취산·흥국사 일원’이 자연유산(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10일 밝혔다.

1979년 지정된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2022년 지정된 금오산 향일암 일원에 이어 여수의 세 번째 명승이다.

영취산은 50~60년생의 수만 그루가 모여 군락을 이룬 진달래밭과 기암괴석, 산 정상부에서 바라본 골명재 뱃나무 군락지와 순천만·광양만·한려해상공원 등 다도해 해상풍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흥국사는 지난해 ‘소조사천왕상’ 보물지정에 이어 18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흥국사찰로, 경내 사찰 건물 등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됐다.

자연유산(명승)을 지정 예고한 국가유산청은 영취산·흥국사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자연유산(명승)으로 최종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명승 지정을 통해 영취산 진달래 축제 등 여수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브랜드 강화와 관광·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여수모아치과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보건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여수시보건소가 여수모아치과병원(이사장 오창주)과 협업해 지난 9일 치과병원 직원 6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마쳤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병원 내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병원 근무자들의 초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상황을 가장 해 의식 확인, 119 신고, 올바른 심폐소생술 자세와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순서로 진행됐으며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순서와 자세를 몸에 익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생존율과

뇌 기능 회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수시민의 안전을 위해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는 매주 화·목·금요일마다 2층 상설교육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수호천사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수시민이라면 누구나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www.yeosu.go.kr/newok) 또는 전화(061-659-4220)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는 지난 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GS칼텍스로부터 전달받은 1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와 저소득가구 600세대, 북한이탈주민 100세대 등에 각각 전달했다.

여수시 제공

GS칼텍스, 지역 소외계층에 추석 선물세트 전달

여수시가GS칼텍스(대표 허세홍)로부터 전달받은 1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와 저소득가구 600세대, 북한이탈주민 100세대 등에 각각 전달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후원 물품은 쌀(20kg) 1270포와 식료품 선물세트 700개로 선물세트는 부침가루·당면·소면·참기름·간장 등 명절 음식 준비에 쓰일 13종 16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행사장에서 후원 물품 전달식이 열렸으며 행사에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장,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 GS칼텍스 자원봉사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명 시장과 김성민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을 비롯한 행사참석자들은 식료품 선물세트 제작과 포장에 직접 참여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정기명 시장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0년째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에 앞장서 주신 GS칼텍스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이웃이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의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는 2005년부터 이어진 명절 나눔 행사로, 이를 통해 여수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성품의 누적 규모는 총 17억 원에 달한다.

여수=이경기 기자

금오도·손죽도에 헬기 착륙장 신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여수시가 도서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남면 금오도와 삼산면 손죽도에 헬기 착륙장을 신설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금오도·연도·손죽도·초도에 응급 헬기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화된 금오도, 손죽도 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 요구되어 왔

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전 및 신설을 추진했다.

헬기 운용 시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될 수 있도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등과 협력하여 설계했으며 주변에 등기구

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자리에 응급 헬기 착륙장을 조성하게 됐다”며 “섬 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10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일반인 1700원

여수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요금은 2020년 9월1일부터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4년 만에 요금 조정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6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도내 시내버스 운임·요금 13.3% 인상’을 적용한 것으로 여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근 시와 협의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인 1500→1700원(200원 인상) △중·고등학생 1200→1360원(160원 인상) △초등학생 750→850원(100원 인상) 등으로 변경된다.

시 정책사업인 ‘여수시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교통카드 이용 시 요금 100원 할인, 무료 환승(하차 후 60분 이내 1회 한정)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여수=이경기 기자